

2010

대만 신화학물질제도 요약



대만 신화학물질제도 요약

전 석 중 이사

대만은 2009 년 6 월 기존의 “Labor Safety and Health Act” (LSHA: 勞工安全衛生法)를 개정하여(제 7 조 2 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은 유해성/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지 않으면 제조, 수입 및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규화학물질 여부의 기초가 되는 기존화학물질목록은 현재 行政院勞工委員會(CLA: Council of Labor Affair)의 주관하에 작성되고 있으며, 기존화학물질목록의 등재를 위해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제보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제보를 받아 완성된 기존화학물질목록은 2011 년 6 월에 공표가 될 것이고, 이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2011 년 6 월부터 신규화학물질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만 제품 또는 물질을 대만에서 유통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경우 현재 대만에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있다면, 수출하는 물질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원노공위원회에서는 기존화학물질 등재를 위한 가이드스(Guidance for Existing Chemical Substance Nomination)를 발표하였으며, 발표된 가이드스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화학물질목록 등재 대상 물질

1993 년 1 월 1 일부터 2010 년 12 월 31 일까지 대만 내로 수입되었거나 대만에서 제조, 처리 사용 판매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제보(nomination)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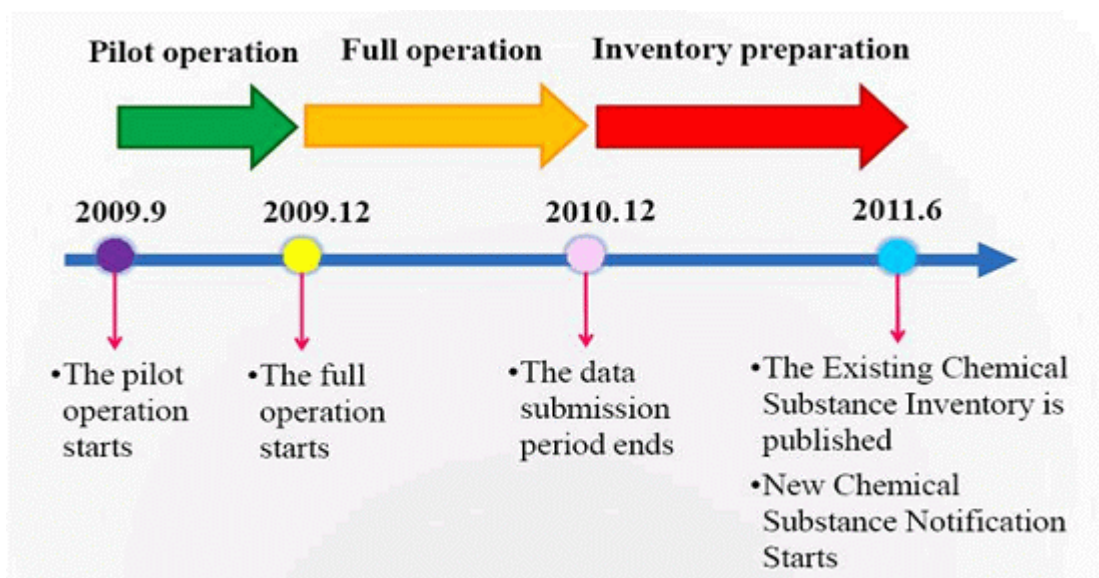
※ 이미 누군가가 등재하였다면 중복등재 하지 않아도 된다.

2. 면제대상

화학물질이 다음의 조건들중 하나에 만족하면, 제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록되지 않아도 된다).

- (a) 물리화학적 조치 없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물질 혹은 고분자
- (b) 2% rule 이 적용되는 고분자
- (c) 시운전을 위해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된 화학물질
- (d) 반응기 혹은 반응과정에서의 비분리 중간체
- (e) 혼합물자체(혼합물 내의 신규화학물질은 제외 대상이 아님)
- (f) 완제품
- (g) 세관감독하의 화학물질 (보세창고 내의 물질)
- (h) 군사적 이용을 위한 화학물질
- (i) 상업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 혹은 불순물
- (j) 폐기물

3. Timeline(등재기한)



※ 2010년 12월 31까지 반드시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여야 함.

4. 제보자(nominator; 제보자)

기존화학물질목록 등재를 위해 행정원노공위원회에 기존화학물질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보자는 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제조, 처치, 사용, 판매한 기업 또는 기구, 또는 위탁을 받은 대리 기업 또는 기구이다. 대만내의 법인만 제보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5. 제보 내용

제보자는 <http://csnn.cla.gov.tw> 에서 다운받은 제보틀을 사용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제보자의 기본 정보(연락처, 기업번호 등...)
- (b) CAS 번호
- (c) 물질의 중국어명칭/영문명칭/기타명칭(관용명, 약칭명, 상표명....)
- (d) 제보전 3년간 평균 톤수 범위 정보(다음의 6 개의 톤 범위가 있다):
 - 1,000 톤/년 이상
 - 100~1,000 톤/년
 - 10~100 톤/년
 - 1~10 톤/년
 - 10~100kg/년
 - 10kg/년 미만

6. 자료보호

제보자가 제출한 정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형태는 다음 두가지 이다.

(a) 자동 보호

기존화학물질목록에는 화학물질명 및 CAS 번호만이 공개되고 제보자의 기본정보 및 연평균톤수 범위는 공개되지 않아 자동으로 보호된다.

(b) 보호 신청

만약 화학물질명 및 CAS 번호 역시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제보자는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명(generic name)만이 공개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보호신청이 허용되면 화학물질명과 CAS 번호가 5 년동안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는 기간 만료후 1 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7. 국내 기업의 대응

대만으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수출 물질의 인벤토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존화학물질목록의 등재는 물질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질 인벤토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혼합물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조제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혼합물내의 물질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망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만 내의 수입자나 제조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목록을 등재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제품내의 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 수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하여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경쟁자가 없는 물질의 경우 데이터 보호를 신청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 공급자로부터 혼합물을 구입할 경우 상위 공급자가 혼합물내의 물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할 경우, 상위 공급자에게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의 신화학물질제도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단순하고 고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공급망에서 물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상위공급자 및 수입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한다면 수출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